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농약산업 대응전략 설명회(I)

PL법 시행과 농약산업

제품 결함여부 제조자가 밝혀야, 일반인 규명하기 어려워
안전제품 생산 위한 체제정비·기술개발 등이 적극적 대응방법

■ 장석진 / 한국PL센터 책임전문위원

지난 11월 5일 농약공업협회에서 주관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여러 회원사와 더불어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눈 일이다. 이날 여러 회원들이 참석,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제조물책임이 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 생각된다.

제조물결함 피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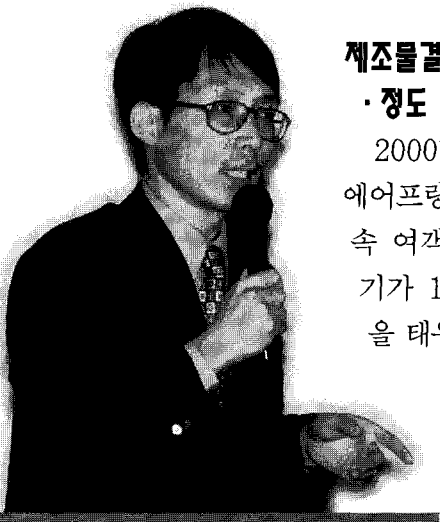
· 정도 점점 커져

2000년 7월 25일 에어프랑스사의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기가 113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하던 중 활주로에 방치되어있던 급속 조각 파

편에 의하여 파열된 바퀴가 비행기 연료탱크에 충격을 가하여 비행기가 폭발되어 추락된 사고가 있었다. 그후 1년 후인 2001년 7월 총 1억달러의 배상금에 합의되었으며, 그 동안 콩코드 비행기와 바퀴회사에서는 각각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 새로운 타이어와 비행기를 제작하여 지난 9월 5일 운항재개를 발표하였다.

이 사고로 타이어는 급속충을 반으로 줄여 경량화 하고 3cm 깊이의 예리한 칼날에도 펑크나 압력저하 파편조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비행기 날개부분의 연료탱크에는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케블라 고무보호대를 부착하는 한편 착륙장치 주변의 배선도 강화하는 등 3천만달러를 들여 개조작업을 실시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가 제조업체뿐 아니라 관련 국가의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제조물 책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사회의 발달과 대량생산, 대량 소비, 유통구조의 발달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조업자 무과실결함책임으로 전환 '체계정비·기술개발'이 적극적 대응

제조물책임법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 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이 법 이전에는 민법 720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고의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제조물책임법의 제3조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즉, 고의나 과실은 민법에서 배상책임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만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책임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 것이 큰 특징이다.

즉 제품사고시 제품고유의 지식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의 무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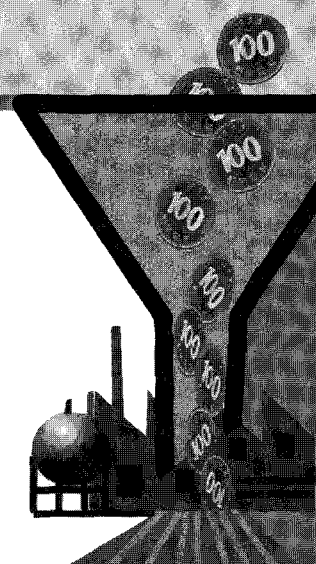
결함책임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제조자가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당시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등이 입증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나 기술의 개발보다는 소극적인 방법일 것이며 결국 우리가 만든 제품을 소비자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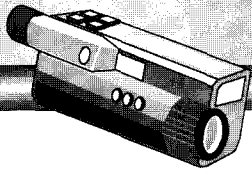
철저한 조사·준비 선행되어야

농약업계에서는 농약의 용도에 따라 병두경과 포장지의 바탕색을 다르게 표시해서 그 사용목적과 용도를 분류하여 혼돈을 방지하고 있으나 농약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이는 얼마전 질소통과 산소통이 바뀌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병원에서는 산소통과 질소통을 그 색깔로서 구분하고 글씨로 표기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농약의 오·남용 또는 살포방법에 따라 중독사고를 경험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공방은 어떠한 화학제품이나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농약산업 대응전략 설명회(Ⅰ)

약품보다 심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경우는 일반 보상적 배상보다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하여 제조업자로 하여금 엄청난 부담을 지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인에게 있어서 농약은 필수적인 것으로 아주 친숙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도 특정적이지 않으며 다수에게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홍보하는 농약에 대한 광고에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나머지 약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것은 제조업자의 제품에 대한 명시적 보증으로서 소비자는 제품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눈이나 귀에 익숙한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필요하고 안전하다고 신뢰하며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효과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제품의 경우 그 경고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사고 발생시의 대처방법에 대하여도 자세하고 명확하게 표시한 결과 우려했던 매출의 감소는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요즘의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우선 제품의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은지, 필자는 개인적으로 농약병에 아주 큰 글씨로 '농약'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으로 농약이름이나 효능, 부작용 등을 표시하기를 바란다. 또, 농약이름이 과자이름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쪽한 이름은 아닌지, 너무 어려운 외국어는 아닌지, 쉬운 이름이면서 농약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한다.

농약 용기는 특정업체에서 공동으로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수거를 위한 수거가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적극적 수거방법을 강구해야겠다. 더 나아가 농약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올바르게 안전한 농약취급방법과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에 대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구성원 교육·기술개발' 결함방지 위해 피드백 돼야

농약은 개발할 때 우리는 제일 우선하여 사람에게 대한 안전성과 환경,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농약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부정·불량 농약의 취급 및 유통이 크게 줄었다는 조사결과로 주목된다. 농약을 관리하는 각종 법률이 많지만 농약관리법에서 그 품목과 표시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

하고 있고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건법 등 까다로운 각종 법규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농약의 처리, 제조와 취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관하여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의한 관리에 앞서 예견되는 농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조회사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각 회사차원에서 부담하지 못할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제품이거나 유사한 제품의 개발을 영위하는 기업들과의 공동연구도 추천할만 하다. 즉, 동업자간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공통부분에 관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는 것이다.

한편 안목을 키워 세계적인 품질과 안전성 연구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우리 제품에 그 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겨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련의 외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 실제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이 시행된 여러 국가에서는 아예 신제품의 생산을 포기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을 지연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부분 대두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사명감과 목표를 향해 운영하는 기업측면에서는 세계최고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로 기업이윤을 극대화함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구성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기술개발은 물론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통로를 넓혀두고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제품개발과 결함방지를 위하여 사내 전체에 피드백 돼야 하겠다.

‘해법’ 찾기보다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글로 표현함이 말과 같지 않으며, 말로서는 그 뜻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書不盡言 言不盡意) 한다. 또한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들어진 규정과 테두리에 얽매어 스스로 사고의 폭을 좁힐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여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테두리에 우리는 맞춘다는 것은 마치 작은 구두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여러 단체로부터 늘 질문 받는 것은 ‘우리한테 맞는 제품안전 점검표가 있는지,’ ‘제조물책임 체제에 관하여 우리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참고서가 있는지’ 등이다. 그럴 때마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만든 제품은 우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약정보**

